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매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가슴이 벅칩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전국 270여 개 시민단체에서 법안 발의 통과율,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주신 상이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우수하게 평가받아 기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에 온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빈곤에 빠진 어르신분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차별을 겪는 장애인분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등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과 경제위기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탓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수상에는 '참 잘했다'라는 칭찬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노력해달라'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도 담겨있다 생각합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똑똑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 그대로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과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수상의 가치를 제가 앞으로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선 우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권명호

먼저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통과율 등 12개 평가 항목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정쟁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입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매진하여 국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제21대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 가지고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주신 법률연맹 총본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 정책전문가 출신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숙원과제인 법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과 하도급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외원자재가격 급등에도 힘의논리에 눌러 납품단가 조정도 못하는 중소기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첫 대표발의하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반영 등 추진하여 현재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곧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봉사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봉사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제가 맡은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경만 드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국회의원 김경협입니다.

먼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입법감시 분야의 권위와 전문성을 지닌 시민 단체로부터 받은 상인 만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침체 우려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멈춰있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헌정대상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천시민들께서 주신 상이기도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천발전 4대 전략’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부천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법·입법 감시, 법률·인권교육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장기 경기침체, 대북 안보 위협 등 우리 모두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수상은 보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절실하다”는 김대인 총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안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를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부족한 제가 훌륭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저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국군 장병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 습니다. 지난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산비리 척결’, ‘국군 장병 복지 향상’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지 못한 과정의 경과 · 각 정부 환수 추진 과정과 환수 구조의 문제점 · 앞으로의 과제를 망라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는 제게 뜻깊은 성과입니다.

‘군인사법 개정안(대안)’의 통과도 무척 뜻깊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군인의 사망 시 원칙적으로 모두 순직을 인정하도록 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까지 사망 사고 이후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은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시행으로 청춘을 바쳐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을 더욱 예우하고, 안타까운 사고 이후 가족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둔 성과보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더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기본에 충실하며 성실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21대 국회 2년차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심사와 내실있는 평가단 운영으로 국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의 민생을 가장 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민생회복, 민생정당의 역할, 불공정·특혜 행정 바로잡기 라는 3가지 기조 하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통해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의 영광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반갑습니다. 전주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감시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법률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일터는 참 다양합니다. 지역행사에서 지역구민과 함께하기도 하고 현안이 있는 민생현장 한가운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본업은 국회에서 이뤄집니다. 현장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와서 제대로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헌정대상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상이라서 더 큰 영광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지난 의정활동에 안주하지 말고 남은 2년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반기를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위는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 국면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정쟁보단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짜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는 등 우리 사회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정치철학인 지역,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인인 ‘모두가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국민 삶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대구북구을)

안녕하십니까. 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가장 권위 있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 포럼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장애총과의 만남, 시각장애인 낚시 체험, 애니메이션과 웹툰 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문화예술법학회 및 관광학회와의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고,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우리 문화계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웹툰작가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만화진흥법’과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100대 입법과제로 선정된 ‘메타버스 관련 3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메타버스콘텐츠 진흥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아무쪼록,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의원 헌정대상에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께서 주신 헌정대상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주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성실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국회의원 김승수

제21대 국회 2차 연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김예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제21대 국회 2차 연도 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상임공동대표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수여하는 헌정 대상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상이기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2년 차를 보내며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동시에, 국정 감사 및 예·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향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2년 차 국회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을 추가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국민의 메신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나라, 모든 다름이 존중받는 사회, 수많은 도전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위해 남은 임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히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에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안동·예천 시군민께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국회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대 최대·최대 추경이 이뤄졌고, ‘대장동 게이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많은 국정 현안이 대두되었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와 야가 극한으로 치닫는 대립양상이 아닌 국민을 위한 변화와 개선을 위해 협치와 선의의 경쟁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우리 안동·예천의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성실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등원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뜻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여하는 상이기에 더욱 뿌듯한 마음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만, 혹시 모자란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뒤돌아 봅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아쉬움과 성취를거울 삼아 남은 임기동안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주어진 소명을 더욱 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32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고 시민사회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회의원 류성걸 배상

‘헌정대상’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초을 국회의원 박성중입니다.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몇 배는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지켜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좋게 봐주셔서 ‘2018년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을 수여해주신 것에 이어 ‘헌정 대상’이라는 국회의원에게는 가장 값진 상을 수여해주신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물꼬를 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쉽 없이 돌아가는 사회에 맞춰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기존의 원구성 약속을 파기되고, 양보를 배제한 협상 참여 등으로 인해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야당은 무시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 원구성에 합의를 하여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는 바람과 세월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의정활동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깊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불어오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를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을 21대 국회에서 두 번 연속 받게 되었습니다. 27만 부산 남구 주민 덕분입니다.

오늘 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실용적이고, 민생을 위한 법 만들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부분을 세심히 찾아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상 부여받은 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화에서 국회의 시계가 멈추면 민생이 더 어려워 집니다. 민생의 시계가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여야 관계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고 있는 다툼과 반목만 있는 국회가 아닌, 타협과 상생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입법성공률 41.8%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고소고발남용방지법’ 등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 수상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는 국회의원 박재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해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헌정대상’은 그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상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주는 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는 국민 여
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정치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입니다.

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에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영광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20년이 넘도록 꾸준하고 깊이 있게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오신 법률소비자연맹 구성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축적해온 노력은 국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역할 덕분에 국민의 존엄과 권리, 자유가 더욱 증진될 수 있었고,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실질적 정당성 뿐 아니라, 법집행의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오셨습니다. 최근 들어 권력에 의해 검찰, 경찰 기능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률소비자연맹이 해오신 역할의 중요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법을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감시노력과 대안제시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회에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이와 같은 노력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과 구성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항상 스스로를 ‘국민비타민 서영석’이라고 소개하곤 하는데, ‘국민비타민’은 지역에서 32여 년간 약사로 활동하며 동네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생활보건운동으로 폐건전지를 가져온 동네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었는데, ‘비타민 아저씨’라는 값진 별명을 얻었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처럼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천시의회원과 경기도의원으로서 활동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 수상으로 그동안의 활동과 노력을 인정받은 거 같아 무척 기쁩니다. 한편 현재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생각하면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겨봅니다.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일준입니다.

먼저 「2022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고생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가 폭등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저에게 주어진 '2022년 헌정대상'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거제 시민들과 약속한 3거 4국(3일은 거제, 4일은 국회)을 지키며 초심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년간 총 94건의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 실패와 불법 도박장 민생 문제, 낙하산 인사 및 명확한 기준 없는 세금 집행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 수상은 지난해 성과라기보다 올해와 내년에 더욱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상임위원회 출석·법안표결 참여·대표법안발의 성적·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여부 등 12개의 객관적인 지표로 계량화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신뢰와 격려를 전달하는 유서 깊은 상임을 잘 알기에 더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1년은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차에 접어들며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감시하여, 장기화 되어가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임위 활동과 대정부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무제한적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전담 병원의 지정을 촉구하는 등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책임감 있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강화, 차별금지법의 여성 역차별 문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썼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가능한 ‘심리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심리사법안」,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의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 발의에도 앞장섰습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며 스스로와 약속했던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사회약사의 소명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늘 되새기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했기에, 이번 헌정대상 수상이 더욱 보람 있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의 수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19.(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제21대 국회 2년차 종합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먼저 사법과 입법기능의 감시와 법률·인권교육을 통한 사법정치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적 원자재 공급망 불안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저성장 등 절체절명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공정과 상식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뼈를 깎는 쇄신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제 정략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등 본연의 기능과 소임에 충실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상은 의회민주주의의 성장,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저의 노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그동안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의원 신영대입니다.

먼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임·직원 및 회원여러분들께 영광스러운 헌정대상에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0여년 간 국정과 의정활동을 평가해온 전통의 법률연맹이 본회의 재석 및 출석부터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상임위, 예결위까지 12항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깊습니다.

저는 언제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원칙으로 국회 모든 회의에 100% 출석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기관 감시라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해 산업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규제 방안을 지적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한 ‘감면 전기료 반환’ 등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 석유공사·가스공사의 ‘자원외교사업 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도 이런 성과를 높게 평가해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소관 상임위 외에도 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고충을 덜 방안을 제안했으며, 2021년 예결 소위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와 군산에 역대 최대 예산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이 2년 연속 D라는 평가에 부끄러운 마음과 저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국회의원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를 위한 건강한 감시를 꾸준히 이어주길 바랍니다.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헌정대상을 수상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소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년 차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외부전문가 그룹과 온라인 점검 회의를 매주 진행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기민한 정부 대응과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주문해왔습니다.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 참여에 성실하게 임했을 뿐 아니라 법안 발의, 국정감사, 상임위 장관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 등 맡은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탑승하고 있던 KTX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방송을 듣고 본능적으로 달려가 응급처치 후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해 증상 발생 40분 만에 시술실로 이송시켰고, 이후 환자가 퇴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착한사마리안법 개정으로 현장 응급구조활동을 보장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객차, 공동주택 등에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청으로부터 명예 하트 세이버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관련 검증에 나서 두 후보자를 자진사퇴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0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되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세상을 치유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고민하고 힘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해결에도 앞장서서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1대 국회 2차년도 —

국회의원 안규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안규백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마치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써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칭찬과 동시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말씀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러 대치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놓여 있으며, 국내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노인빈곤층 등 많은 국민들의 삶에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다각적인 외교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부유층과 권력층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연맹 제21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_안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저를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 원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올해로 벌써 5번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받을 때마다 새롭고 기쁜 마음입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인만큼, 지금껏 해왔듯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라는 격려와 응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소통과 협치의 자세를 견지하며 오직 국민만을 위해왔습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민생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기쁩니다.

이번에 수상한 헌정대상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보이게, 들리지 않는 곳은 들리게 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오직 성과로써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보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출석은 물론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각종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한 후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떤 상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 권위가 높은 상입니다. 이는 수 많은 시간동안 한결같이 국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며 시간과 열정을 다해 활동하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처음 등원할 때 국민께 드렸던 선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다시 새깁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유권자 앞에 처음 약속드렸던 그 마음과 각오로 앞으로 더 책임감있게 국회의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상 소 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상을 받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에 개원한 21대 국회가 어느새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들께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민생회복에 더욱 집중하라는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이습니다.

지난 한 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농어민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민생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신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경제 위기 극복에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희망과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든든한 힘이 되는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뜻 깊은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한 유경준의원실 보좌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연이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국회가 공전을 반복하고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응 방향 모색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7.19.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경준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한‘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각 국회의원의 활동을 12개 항목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선정하는 상인 만큼, 우수의원에 포함된 것에 더욱 큰 영광을 느낍니다. 아울러 국회 모니터링을 위해 애써주신 김대인 상임공동대표·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위원장·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분야와 입법분야에서 다양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책분야에서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은행 점포 폐쇄·ATM기 감소로 인한 고령층 금융접근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분야에서도 민생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택을 투기가 아닌 거주 수단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담아 발의했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제가 지금껏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를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더욱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을 국회의원 윤재옥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은 입법활동,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평가하고 주시는 상이기에 다른 어떤 상보다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여전히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전반기 동안에는 야당으로서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국회의원 윤 재 옥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소감문 >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사범·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본 의원을 선정해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경·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 유해성 문제, 방치된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미흡 문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의 환경 악화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 등 근로감독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원칙적 적용, 청년실업 해소와 임금체불·중간착취 문제 등 노동정책 개선 방안

을 찾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또한 환경·노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민생을 살피고, 지역 발전을 꾀하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도 정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정부질문에 나서 농촌과 지역의 교육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을 비롯해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제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유공 서훈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145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 간사로 활동하면서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윤준병이 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 07. 19. (화)

국회의원 윤 준 병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비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 우수성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난 30여 년간 사법·입법 감시에 앞장서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직접 헌정대상으로 선정해주셨다는 것에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안팎으로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현안을 발굴하고, 전문성에 집중하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1월 ‘2021년도 국정감사 국민복합상’에 연이어 상을 수여해주신 이유도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부터 시작해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했던 저의 노력을 좋게 봐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에 새롭게 합류하신 초선의원님들을 뵈던 소회를 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초심에 대한 무게감을 글로 옮기면서, 국민의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를 하자며 다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닌 민생의 유불리를 따지고, 위기 타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주신 상이기에 기대에 벗어나지 않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명성을 이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21대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여 무척 기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관계자, 의정활동의 성과를 위해 밤낮없이 함께 노력한 이만희 의원실 보좌진 무엇보다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영천시민·청도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어려운 국정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들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장마와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지난 6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업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형 직불제 시행, 농작물재해보험제 개선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녹이고자 노력했기에 여·야를 넘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새로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중요한 과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상임위에서도 농어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법안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제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온 국민 여러분께서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이만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만 희

수 상 소 감 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옆친데 뒤통격으로 국회 원구성 지연 등 국회 또한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정대상」이라는 과분한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면서, 남다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주신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들어 가겠다는 일념 하에, 18대 국회부터 입법활동을 충실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등원 이후에는 노인·여성·청년·역사·안전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총 8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발의한 법안 중에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하고 간절한 법일지 모릅니다. 제가 제·개정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법이 가지는 힘의 원천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작년에 이어 뜻깊은 상을 연속으로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 의회의 발전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쪼개기 상장,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영진의 주식 대량매도,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년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안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주식시장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복합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받은 상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더 힘쓰라는 뜻으로 여기고 하반기 국회에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지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0여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감시해 온 의정감시 전문단체로, 전국 270여개 NGO와 함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높은 공신력을 쌓아왔고,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 등 3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시민단체로써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공신력과 전문성 면에서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성을 지닌 단체로부터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 입성과 동시에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어민재난지원 지급,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통과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점이 법률소비자연맹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김제와 부안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는 일하는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장섭(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사법·입법감시 분야에서 명망 높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민생의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에너지·무역·통상·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미래차 ▲수소 경제 ▲이차전지의 동향을 살피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로부터 추가 손실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확진자 관리 중심의 방역체제로 전환을 촉구하며, 골목상권의 절박함을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 발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정유사가 원가공개 법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내기업 및 근로자 지원법 ▲친환경차 보급·확산법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법 등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중충적인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또다시 깊은 경기 침체로 들어설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시민사회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입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도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2년 연속 ‘헌정대상’수상의원에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 등원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먼저 돕고, 어두운 사각지대를 밝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소외계층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통합적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필요한 곳에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항상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온 것을 감사하게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충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감사함과 함께 책임감이라는 무게도 느껴집니다. 수상을 채찍질 삼아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연맹 총본부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19.

국회의원 이종성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이 주 환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출신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간 전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하여 상위 25%에만 수여하는 상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허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탈원전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억울하게 제외될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을 밝혀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건수 1위(29건), 대표 발의 법안 건수 2위(69건), 법안 가결율 5위(42%) 등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국회의원 헌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연제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이끌어오고 계신 법률연맹총본부 김대인 총재님께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국회의원 이 주 환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출신 국회의원 전봉민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021년, 2022년 연속 선정된 데 이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부산 수영구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우리 수영구민분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이라는 유서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하반기 의정 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에 청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이 땅에서 꿈과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샌가 ‘희망 가득한 미래’를 말하기보다는 ‘오늘만이라도 잘 살자’고 기도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알파벳 용어를 써가면서 청년을 챙기는 척하지만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는 늘 청년은 소외의 대상입니다. ‘기득권’의 벽 앞에서는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의 삶은 후 순위였습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와 고용 절벽은 청년들의 꿈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입니다.

법률연맹 선정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법률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수산 1번지 통영·고성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방안 제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의 토대 마련 ▲해양 폐기물 수거 현황 및 실효적 처리방안 제시 ▲섬 지역 교통수단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입법·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충실히 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논의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헌정대상 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겨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위와 전통의 법률전문 NGO 단체인 법률연맹도 더 큰 발전을 이루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단체로 뿌리 내리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큰 영광입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에 대해,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과 예산 반영,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식료품 구매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에 발맞춘 비건 식품 제도
문제점 지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주제를 다루고 성과를 낼 수 있었기
에, 저 역시 보람 있고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
속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 헌정
대상” 수상자 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올해도 저를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으로 선정해주셨습니다.

2020년 5월 30일, 국민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아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 국민의 고통과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빛나는 자리보다는 묵묵하게 저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저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호명해주심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 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평가에 따라, 올해 저는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 전체 2위, 비례대표 의원 중 1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핵심인 본회의 출석에서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2021년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좋은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2021년을 결산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가결률 1위'라는 성적도 받았습니다. 통과 법안들에는 국민의 삶과 우리사회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원자로 조종 무면허자 운전 금지법', '이동통신재난 로밍제법', 'ICT 규제 샌드박스법' 등이 주요 법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과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이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되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의 이름을 올려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바뀐 정치 상황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국회 원구성 지연에 따라 헌정대상 평가회 및 시상식이 개최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3연속 수상자에 도전하며 2023 헌정대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공정하고 날카로운 심사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고생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전국의 각 분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5회째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 들어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메타버스 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법)’,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 63건의 다양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중 25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더욱 살피라는 격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 대안들이 국민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며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 승 래

[소감문]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32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자는 소신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국민을 살피고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의정활동 핵심 가치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광주시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고 달빛내륙철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을 확정 짓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상은 민생을 외면하거나 진영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광주시민들, 그리고 밤낮없이 지역과 서울에서 열심히 뛰어준 우리 스태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선정되었던 ‘21대 국회 법률안 본회의 통과율 1위 의원’에 이어 이번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익과 지역발전, 그리고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통한 법치민주사회 구현에 힘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위와 전통이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19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임기 2년차를 넘어가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의 소식은 보다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균열을 점검·보완했고,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안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11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하나의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세상,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수고했던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하느라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의원_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을 국회의원 한병도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법률연맹총본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발의법안 통과율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까지 총 12개의 정량화된 항목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저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동안 지방도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우선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던 것이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예롭지만, 한편으로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쳐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앞섭니다.

금명간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과 국리민복 실현을 위해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까지 3개 상임위를 겸임하며 바빠 지낸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제21대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촉진과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평가를 이어가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각종 논란으로 가열된 국정감사 속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구멍 보완, 광주 해체공사 참사 관련 보상안 마련 촉구 및 전기차 화재 규명 등 국민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안보를 포함해 각종 자극적인 이슈로 정작 능력 검증은 소홀히 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비한 법과 제도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 관리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단속 강화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고차 시장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오직 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으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무한한 애정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이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입니다.

이번 헌정대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수있도록 언제나 경청하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